

#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박 은 주\*  
(부경대학교)

## A Study on Experience of Student's Private Education

Eun-Joo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12, 2009 / Accepted March 30, 2009)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gni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an educational institute of life. For this purpose, the three times of in-depth interviews which were performed the subjects, 6 middle boy 's school student. The data passed through process of three dimension, abstraction of idea, categorization, interpretation. In this process, were discovered four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e of life. It was pilgrimage, activity, system, and compare with schoo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s: first, an educational institute of life is natural of life to student and they accept the life themselves not coercion gradully. second, study of educational institute is repetitional and many and only for school test. third, system of educational institute is concentrated for study, in this point, students distinguish school with educational institute. fourth, in compare with school, educational institute is more comfortable than school. Also, educational institute take care of student more than school.

*Key Words : Students, Experience, Private education*

###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1) 사교육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교육의 중요한 장(場)이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학원을 다니는 요즘의

아이들의 일상이 이 현실을 드러내 준다. 한국의 사교육이 지닌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든가, 사교육비가 가져올 계급 양극화의 문제, 암기 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사교육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이 하나의 현실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교육의 가능성과 장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

0) 2000년과 2003년 사교육을 받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들은 73.5%에서 83.1%로, 중학생은 50.7%에서 75.3%, 고등학생은 39.8%에서 56.4%로 늘어나고

1) 2000년과 2003년 사교육을 받는 비율(2000)에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73.5%에서 83.1%로, 중학생은 50.7%에서 75.3%, 고등학생은 39.8%에서 56.4%로 늘었다. 이 자료를 알 수 있다. R. 이(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사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제2차 공청회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03.

\* Corresponding author : 019-510-1762, sayouham@hanmail.net

을 토대로 사교육의 직접적인 경험자인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동안 사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큰 줄기를 살펴보면, 첫째, 사교육의 실태(송기창 외;2002)와 효과(김현진;2003, 조혜영;2005), 인식(김영화;2003)에 대한 연구가 있다. 둘째로는 사교육비에 대한 실태(김현철 외;1999, 양정호;2006)와 효과(박소영;2008), 경감 방안(고형일 외;2002)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셋째로 사교육 자체에 대한 의미 분석(강태중;2008, 최상근;2003)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정작 사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간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생각들이 실제 사교육 현장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사교육의 실제적인 효과와 한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셋째,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사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인 '학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러 학원을 다니고 그만두는 이른바 '학원 순례'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생성하게 되는가? 둘째, 학원

에서의 일상적인 활동, 행위를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학원이 가진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넷째, 학교와 학원의 비교 속에서 드러나는 학원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학원 생활에서 어떠한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II. 연구 방법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심층 면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라 할 수 있으며, '대화가 전제된 면담은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다(김영천, 2006). 따라서 학생들의 학원생활과 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에도 이러한 심층면담의 방법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연구 참여자는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살고 있는 중 3 남학생 6명이다.<sup>3)</sup> 연구자는 한 친구를 먼저 소개 받은 후, 그 친구의 친구를 다시 소개 받는 식으로 6명의 남자 중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초등학교 친구이거나 학원에서 만나 친

2) 이러한 4가지의 물음 영역은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영역과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을 도출한 것이다.

3) 사교육의 경험은 학년과 성별, 사교육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경험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가 김해지역의 중 3 남학생 6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심층면담이라는 연구 방법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중학생을 선택한 것은 사교육의 경험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5년 정도의 시간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억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구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면담 가이드에 의한 방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한 친구의 집을 활용하였으며, 면담은 각각 총 3회씩 실시되었고, 한번 할 때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결과는 메모와 녹음으로 남았으며, 그것을 나중에 모두 풀어서 기록해 두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평범한 중 3 남학생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지도 않으며, 특별히 잘살거나 못살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도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 또래의 고만고만한 고민과 능력과 꿈을 가지고 있는 남자 중학생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담으로 얻어진 자료는 '기술의 차원, 분석의 차원, 해석의 차원'을 거치면서 다듬어졌다(김영천, 2006). 자료를 기술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학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풀어 놓고, 그것을 듣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들에서 공통되는 아이디어를 추출하여 범주화하거나 개념화하는 작업이 분석의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해석의 단계는 분석의 과정에서 나온 범주 혹은 개념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글이 목적하는 주제와 적극적으로 연관 짓는 이야기 구성의 과정이었다.

질적연구는 기본적으로 제한적이며 특수한 이야기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제한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좀 더 분명하게 짚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은 6명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숫자는 그들이 어느 정도의 평범함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중 3 남학생의 학원에 대한 생각으로 결론짓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묻는 이 연구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지니는 특성을 한번쯤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이들의 생각은 때로 분명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며, 서로가 모순되는 부분들이 대화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체로 거르듯이 그 말들을 나름의 규칙 위에서 추려냈다 하더

<표 1> 연구 참여자 현황

이름 <sup>4)</sup>	부모직업	가족상황	성적 <sup>5)</sup>	사교육(현재)	좌우명	장래희망
김재우	부-건설노동자 모-중소회사	엄마, 아빠 누나	80~90등	종로M스쿨	잘 먹고 잘 살자	체육교사 경찰
정상훈	부-사망 모-식당운영	엄마 남동생 둘	150등	종로M스쿨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	소방관 과학교사
설영민	부-법원공무원 모-전업주부	엄마, 아빠 형	39등	종로M스쿨	최소한 직업을 가지자	공무원
배강수	부-목수 모-가사도우미	엄마, 아빠 형	130등	종로M스쿨	개가 싸우는 건 덩지가 아니라 의지다	강사
김태일	부-회사원 모-웨딩도우미	엄마, 아빠 남동생	70~80등	종로M스쿨 왕수학	거짓말하지 말자	수학교사
김민남	모-영양사	엄마	50~60등	왕수학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	연구원 검사

4)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5) 성적은 공식적으로는 과목별로 몇 %라는 식의 백분위로 표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계산한

반 등수나 전교 등수로 주로 기억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 제시함.

라도, 이 연구의 자료들은 '생각의 불명료성 내지 불완전성'이라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 Ⅲ. 선행연구 검토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경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로는 이희재(2004), 송희진(2004), 류현숙(2007), 김영미(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희재(2004)의 연구는 '학원다니기'가 지니는 민속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구 참여자는 학생, 학부모, 학원교사 등에 걸쳐 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희망의 원리("학원가서 성적 올려서 꿈을 이룰 거예요)", 선수학습의 원리("이왕 다닐 바엔 남보다 먼저 남보다 빨리 해야죠)", 투자효과의 원리("돈 내고 다니니까 학교보다 뛰든지 더 열심히 해야죠)", 해방의 원리("학원 보내면 서로 해방 되는 거죠)", 불안해소의 원리("혼자 집에 있을 용기도 없고 혼자 공부할 능력도 없어요)", 또래집단 구성의 원리("학원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놀고 시간도 보내야죠") 등이다. 여기서 학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차원의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다양한 욕구도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희재(2004)의 연구가 '학원다니기'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면, 송희진(2004)의 연구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원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초등학생 5명에 대한 장기간의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그들에게 학원의 경험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학원, 혼자 공부하는 부담감을 덜어 주는 학원, 일상이 된-그냥 다니는 곳으로서의 학원, 지루하고 놀이를 방해하는 학원' 등의 의미가 포착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학원을 다니더라도 학생들에 따라 학원의 경험과 의미가 크게 차이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류현숙(2007)의 연구는 학교와 학원이라는 두

삶이 공존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그 위에서 학교 수업이라는 것이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와 갈등을 낳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명의 초등 교사와 3명의 초등 학생이 연구 참여자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를 보면 학교수업은 '놀면서 대충하는 공부, 학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하는 곳'인 반면, 학원은 '공부 매니저, 미리 잘할 수 있도록 예습하는 제 2의 학교,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공간' 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김영미(2004)의 연구는 학교와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원에 대한 '교사관, 수업관, 인성관(생활지도 및 체벌 상담활동), 평가관, 학교와 학원의 관계성'이라는 기본적 틀을 마련하고,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29명을 연구 참여자로 심층면담과 서술적 설문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학원에 대한 인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교에 비해 학원의 교사와 수업방식, 생활지도가 더 편하고 자유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학원은 학교수업에 도움을 주는 존재이면서 아울러 학습을 방해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원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각도는 조금씩 다르다. 이희재의 연구는 학원다니는 것의 일반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송희진은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류현숙의 시선은 학원을 학교수업의 맥락과 연계시켜 바라보게 하고 있으며, 김영미의 연구는 학교와 학원의 차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원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 이처럼 각각의 연구들은 학원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지만,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공통성으로 인해 그 속에는 비교적 생생하게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 IV. 연구 결과

### 1. 당연히 가야 하는 자연스런 일상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그들이 거쳐 간 학원을 돌아보면 가히 '순례'라 할 만하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연령을 보면, 제일 빠른 경우가 6살 유치원 때이고 제일 늦은 경우가 초등 4학년 때인데, 평균적으로 초등 2~3학년 사이에 학원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학원을 다닌 수는 최대 9개에서 최소 3개이고, 학생들이 경험한 학원의 종류로는 예체능 학원에서부터 영어학원, 보습학원, 종합학원, 단과학원 등 최소한 3종류 이상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학원 순례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두 가지의 인식을 형성해 간다. 첫째는 학원생활이 '자연스런 일상'이라는 인식이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대개 학원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보통 2개 이상의 학원을 동시에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학원생활을 학생들은 최소 6년에서 최대 9년 이상 지속해 온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일 매일 되풀이되어

온 학원 생활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낯설 것도 없는 '그냥 다니는 일상'인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학원갈 생각을 하면, 음, **그냥 학원갈 시간이 됐네** 그리고 그냥 준비해요. 학교에서 축구하고 돌아온 날은 몸이 피곤해 쫓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돈도 냈는데... (정상훈)

사실 가기 쫓 싫을 때 있죠. 일주일에 한 1~2번 정도? 나머지는 그냥 어? 시간됐네. **가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일)

초등학교 때는 좀 싫었는데, 이제 학원가는 것 **그저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김재우)

이제 보통 평일에는 **자연스럽게 가죠**. **학교 가는 것처럼요**. (배강수)

학원 순례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두 번째의 인식은 '학원 다니는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표 2> 학생들의 학원순례기

	유치원	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6	중 1	중 2	중 3
김민남	바이올린	피아노		용변, 영어	영어	영어 수영	영어 김도	종합학원	종합학원	단과(수학)
정상훈			보습학원 태권도				종합학원		종합학원	
김태일		미술, 음악학원			영어 그룹과의		종합학원	종합학원, 단과		
설영민			보습 학원				종합학원 수학과외 영어 단과	종합학원		
김재우					태권도, 보습학원			종합학원		
배강수					종합학원			뇌훈련학원	종합학원	

타율적인 이유에서 스스로의 필요라는 측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학원을 가게 되는 첫 이유를 보면, '엄마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성적이 나쁘다고 엄마가 보냈다, 공부 너무 안 한다고 보냈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냈다' 등 '엄마와 공부'라는 이유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타율적으로 억지로 학원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학원은 지루하고, 싫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공간 이미지를 형성하다가 중학교에 들어서게 되면 학원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나는 혼자서는 공부가 잘 안되니 학원을 다녀야 한다, 어느 정도 공부의 틀을 잡기 위해 학원 도움이 필요하다' 등 학원 다니는 이유를 자신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다니는 것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제는 당연히 가야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안하면 안 되니까요.** 중 2 되면 진로가 거의 결정되는데 어디 어떤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적을 내야 하니까 공부 해야죠. (정상훈)

대개의 경우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편이었는데, **중 2 때는 제가 강력히 원해서 했어요.** 성적을 좀 올릴라고요.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안 다니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설영민)

처음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싫어지고, 숙제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대충 대충 넘어가거나 이런 저런 핑계대고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 1 중간고사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한테는 아직 성적을 올릴려면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잘 안되어서요.** (김재우)

이처럼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학원 생활은 더 이상 부모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모습을 띈다. 구체적인 계기는 중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이다. 학생들은 좀 더 괜찮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중학교에 와서 구체적으로 실감한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서서히 인식한다. 이처럼 학원생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태도에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성공 시나리오를 내면화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있다.

## 2. 반복적으로 많이 시키는, 학교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학원공부

학원의 존재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부다. 놀기 위해서, 혹은 취미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학원에 보내거나 다니지는 않는 것이다. 친구들이 없어서,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엄마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정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이고, 때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학원은 학교 공부를 보완하여 학교 성적을 올리고, 그리하여 좋은 대학을 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하는 학원의 공식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하는 활동의 90% 이상은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부의 형식은 크게 수업과 시험, 숙제로 나누어진다. 한 학생의 종합 학원에서의 수업시간표를 보면, 1교시 5시 35분~6시 18분, 2교시 6시 20분~7시 3분, 3교시 7시 5분~7시 48분, 4교시 7시 50분~8시 33분이다. 수업시간 43분에 쉬는 시간 2분이 주어지는 셈이다. 학원은 수업시간으로 딱 차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학원에서의 활동은 학교에 비해 턱없이 좁다는 말을 학생들은 하고 있는 것이다. 숙

제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 매일 쏟아진다. 아이들은 학원 숙제를 하느라 학교에서 바쁠 지경이다. 시험도 매일의 쪽지 시험을 비롯해서 매 단원 정리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시험 등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가 일정 점수에 이르기까지 채시, 삼시, 사시까지 치르고 있다. 물론, 학생들은 원치 않으면 그만 둘 수 있고, 교사나 상황을 봐야야 대충대충 하거나 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공부의 양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학원에서의 공부 경험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인식을 형성하게 할까?

첫째, 학원 공부란 많이 시키고 많이 반복하게 하는 공부라는 인식이다.

**학원에서는 너무 많이 시키니까요.** 숙제가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이 내 준다**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해 보면 시간 안에 되긴 되거든요. 학원 숙제의 특징은 **반복을 많이 하게 하는 것, 유형을 많이 해서** 한 단원 안에서 600문제 이렇게 나오는 데요. (김태일)

도움이 돼요. **많이 시키는 것을 통해서요.** 주말에도 나오게 하고, 늦게 까지 하게 하고, 평일에도 시험기간 중에는 밤 12시까지 하게 하는 거요. (배강수)

공부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아, 왜 이렇게 많노?** 하면서 짜증도 났는데, 시키는 대로 공부를 좀 하면서는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니까... (정상훈)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원의 공부는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이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즉 '못마땅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에 성적을 올리려 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이다.

두 번째로 형성된 인식은 학원의 공부는 학교 시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도움이 돼요. 시험 문제가 비슷하니까. **학원에서는 워낙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게 학교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정상훈)

**학교는 이렇게 쪽 돌아가면서 가르치는데, 학원은 학교시험을 위해 편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요. 근데, 나처럼 생각하는 학생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길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막 짜증내요. (설영민)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학원 공부에서 나오게 되는 걸 알게 되니까 학원 수업에 더 집중하게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올 때도 많아서 시험기간에만 잠깐 학교 수업에 집중해요. (김민남)

학생들은 일단 학원의 공부가 학교 시험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다. 이 믿음에는 무엇보다 학원에서 이미 풀었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비슷하게 때로는 똑같이 나온 경험이 강한 인상을 심어 준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이 내 주는 문제 프린트에 더 많이 매달린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공부에 대해 학생들이 온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학원 공부에 대한 세 번째의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즉, 학원 공부는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 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는 **학교 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성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인 것 같아요. (김재우)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학원만 다니는 것 같고는 안된다고 봐요. **학원은 하계끔 하는 강제 의 힘은 있지만, 자기 목표나 의지가 없다면 계속 성적이 오르는 힘들다고 봐요.** (설영민)

(성적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스스로 공부에) 개입해 보자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천이 좀 잘 안돼서... (배강수)

음, 근데, **학원은 솔직히 떠 먹여 주는 공부잖아요.** 듣기만 하고, 적기만 하고, **지금은 내가 공부를 잘 안해서 학원 다니고, 학원 내준 것을 따라서 풀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되면 다 자기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김민남)

학원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인 공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그 공부가 반복적으로 많이 시키는 공부이며, 학교 시험과 긴밀한 관계<sup>6)</sup>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공부가 학교 성적을 지속적으로 올려 주거나, 진정한 공부 실력을 쌓는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학원과 관련된 이후의 계획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하다. 6명 모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원의 도움을 좀 줄여 단과 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으며,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만 생긴다면 학원을 그만 두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가능하면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학원 공부가

6) 이는 김현주(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원수업의 특징을 '반복과 보충, 학교시험을 대비하는 수업, 수준차를 고려한 수업'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원 공부는 '떨쳐 버리고 싶지만 떨쳐 버리기 힘든' 양면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상태를 자신의 부족-스스로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 하는-과 연관 지으면서 학원 공부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주로 취하고 있다.

### 3. 집중과 공부를 위한 학원시스템, 우리 에겐 학원과 학교 모두가 필요하다

학원은 학교처럼 공부를 위주로 하는 공간이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그 시스템의 특징으로 '반의 학생수가 적은 것, 수준별 반편성, 선행학습' 등을 꼽았다. 종합학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한 반의 학생수는 보통 10~15명 정도이며, 어느 학원이든지 들어갈 땐 반 편성 시험을 통해 수준을 구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원에서 마련한 시험을 통해 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다. 선행학습의 경우, 아이들이 받았던 수학을 예로 들면, 학기 중에는 학교보다 2~3단원 앞서 진도를 나가고, 여름방학 동안엔 2학기 진도를 모두 나간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형성하는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학원의 시스템을 공부 집중을 위한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다.

학원 수업이 더 잘 집중되어 공부하기가 좋은데, 이유는 **학생수가 적어 아이들이 덜 떠들기 때문이에요.** (김재우)

학원이 더 집중이 잘 돼요. **학교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요.** 쌤이 혼내도 무시하고 떠들어요. (김태일)

**수준별 수업이 좋아요. 쉬어 있으면 괜**



**히 잘하는 애들은 망치고,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깐 떠들고 수업에 잘 집중이 안돼요.** (김재우)

둘째, 학생들은 학원의 시스템이 학교 수업이나 공부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선행학습한 것 때문에 학교생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 수업시간에 기분이 좋고 이해가 잘 돼요. 어떨 땐 약간 지겹기도 하지만,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 수업에 떠드는 것과 선행학습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태일)

수준별 수업을 해보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못하는 아이들은 쪽 팔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경쟁심이 생겨 더 열심히 하고, 상 중 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배강수)

**학원에서 배운 것이 회미할 때쯤 학교에서 다시 배움으로써 기억하는데 도움도 되고, 미리 알고 있음으로 해서 수업시간에 덜 맞게 되어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요.** (정상훈)

학생들은 학원의 기본적인 구조라 할 수 있는 소수 인원의 클래스, 선행학습, 수준별 반 편성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수준별 반편성이나 선행학습이 집중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선행학습이 학교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더 많이 내리고 있다. 학교수업 시간이 지루하고 산만하고 시끄러운 것은 미리 공부를 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이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 중 5명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일반의 우려와 다른 시각이어서 주목이 된다.

학원만의 시스템이 집중과 공부를 위한 것이라는 아이들의 인식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첫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 방식의 시스템이어야 공부와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의 기능을 분명하게 분리시키는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학원은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고, 학교는 친구를 더 많이 사귀게 하거나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설영민)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긴 한데,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듣고, 그래서 애들을 만나러 가는 의미가 더 큼니다. 실제 공부를 하는 곳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반 학생수가 적으니까 못하고 잘하고가 다 보이고, 시험을 치면 다 때리고, 학교는 공부와 관련해 학생들을 안 챙기지만, 학원은 잘 챙깁니다. (김태일)

요컨대, 학생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학원은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고, 학교는 좀 더 폭 넓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식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아이들이 학원생활에서 만나는 공부와 집중을 위한 학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과 공부를 위한 학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형성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러한 학교와 학원의 분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태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 두 기능의 존재를 모두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의 반 인원과

수준별 반편성, 선행학습이 공부와 집중에 요긴하다면, 그것을 학교에도 적용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나 학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렇게(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해서는 안돼요. 학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해요. **학교가 학원은 아니잖아요. 학교는 학원에서 할 수 없는 활동을 폭넓게 하게 해야 해요.** (김재우)

**학교는 학원과 같은 틀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운동이나 미술 같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야 해요. **공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김민남)

#### 4. 학원은 학교보다 편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곳이고, 잘 챙겨주는 곳

학생들이 학원생활을 인식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학교는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학생들은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학원은 자신들에게 어떠한다는 식의 표현을 빈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 과정 속에서 형성된 학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학원이라는 곳이 학교보다 '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가 '학원교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원교사와 학교교사를 분명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내보이는 태도의 차이로 구체화되고 있다.

**학원 수업 때 훨씬 더 맞장구를 많이 쳐요.** 아하, 그렇지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학원쌤이 좀 더 유머러스하고, 더 잘 웃고, 수업시간에 더 잘 탄 소리도 잘하거든요.** 학교쌤은 그냥 인사하고, 수업하고, 그냥 진도만 쪽 빼요. (김민남)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랑 농담도 못하고, 별로 안 친한데, **학원쌤은 농담도 받아주고 격려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으니까. 시험 잘 치면 같이 수업시간에 치킨도 먹고, 피자도 시켜먹고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 공부할 의욕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김태일)

**학원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 질문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쌤이 농담하면 같이 맞받아줘요. 이상하게 **학원에서는 수업시간에 더 말이 많아져요.** 학원쌤은 그냥 친한 느낌이 들어요. (배강수)

**학원쌤은 성격도 개방적이고 활발하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교실과 가까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쌤은 그냥 수업만 하죠. 나이가 더 많고 규제도 더 심하고요. (김태일)

이처럼 학원을 학교보다 편하다고 인식하는 데엔 학원교사를 편하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원교사를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아이들이 편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그 이유를 나이가 젊고, 더 잘 웃고, 더 얘기 많이 해주고, 농담도 잘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자 같은 것도 함께 하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하는 것 등을 얘기한다. 한 마디로 학원교사와는 학교교사와 달리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며, 그 행위들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다. 즉, 학교교사보다 일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기에 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에 대한 편함은 학생들의 태도에서 수업 참여를 높이고,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가져와 수업집중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공부는 학교보다 학원에서 하는 것 같다는 아이들의 얘기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학원시스템과 함께 학원교사가 편하다는 이러한 측면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의 차이 속에서 생성되는 두 번째의 학원에 대한 인식으로는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생각이다.

**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그런 것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학원은 그런 실기를 전혀 안하죠. 오로지 필기만하고 시험공부만 하죠.** (김민남)

**학교쌤은 원래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지식, 민주주의나 뭐 그런 거요... 그래서 학교 쌤은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잘 안하는데, 학원쌤은 맨날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딱 느낌이 온다 하면서.** (김재우)

제 생각에는 공부의 목적에서 학원과 학교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학교에서는. 근데 학원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학교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해야 한다 하고. 쌤들이 공부 가르치는 패턴을 딱 보면서요. (정상훈)

70,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학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공부는 때가 있고 나이에 맞춰야 한다는 식의 어른들의 생각은,

학교가 유일하게 공부하는 곳이었다 당시의 시대적 환경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위의 학생들의 지적처럼, 요즘 아이들의 인식에서는 오히려 학교가 공부 아닌 무엇을 하는 기관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의 생각에서는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 학교는 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친구를 사귀는 곳이라던가, 필기만이 아닌 실기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부가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 등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학원과 학교의 분리와 역할 배분이 이미 이루어진 듯하다. 이러한 인식의 생성이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계속 되어온 학생들 자신의 학원경험일 것이다. 지금의 어른들은 지금의 학생들과 같은 학원의 경험이 없다. 우리는 학교와 학원을 다르게 다루는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학원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 정체를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학교와 학원을 비교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의 학생들의 인식은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들을 더 잘 챙긴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작으니까 쌤들이 보면 딱 알아요. 우리 학원은 카드가 있어요. **출결카드 찍으면 엄마한테 바로 문자가 날라가요.**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있으면 얼마 안가서 학원에서 잘라버려요. 학교에서는 문제아가 있어도 그렇게 빨리 자르지 못하잖아요. **학원에서는 게시판에 누구누구 퇴소하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비슷하게 공부하려는 아이들만 남게 되요. (설영민)

**학원은 안 오면 쌤이 엄마한테 연락하고**

**무슨 일 있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빼 먹기가 힘들어요. 학원에 온다고 꼭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더라도 놀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딴 짓을 할 수도 있지만, 해 봤자 나중에 또 숙제 내주고 하면 맞게 돼 있고. 그러면 숙제도 해야 하고** 듣고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김민남)

시험 틀린 것 공부하라고 **오답노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적어라 하고,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계속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훈)

**학교는 감시를 잘 안해요.** 통제를 조금 하기는 하는데, **교실이 넓잖아요.** 근데 **학원은 잘 보이고, 계속 체크하고, 또 무조건 때리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잘 되지만, 그게 좀 거부감을 줄 때도 있죠.** (설영민)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 볼 때, 학원은 뽀뽀한데 비해 학교는 느슨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로 성적, 공부와 관련하여 아이들을 관리, 통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와 학원의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달리 표현하면, 학교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성적과 공부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과 관리를 하지 않는데 비해, 학원은 아이들의 성적과 공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해 주고, 통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을 학생들은 학원이 아이들을 더 잘 챙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원의 이러한 방식을 학생들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학원의 이러한 관리와 통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악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가 적당히 자신을 통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학원이 학생들을 더 잘 챙긴다는 인식은 학생들의 이러한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은 공부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의 두 바퀴이다. 어느 한 바퀴가 없다는 것이 이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지경으로 그 두 바퀴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 단단히 자리를 잡아 버렸다. 그러니 학교교육과 사교육을 둘러싼 무성한 얘기들과 논의는 당연한 모습일 것인데,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과연 사교육에 대해 어떤 경험들을 하며,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김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학원교육을 받아온 6명의 평범한 중 3 남학생들을 심층면담하였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발견된 학원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고, 논의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학원 경험이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학원순례의 경험, 학원에서의 활동 경험, 학원시스템 경험, 학교와 학원의 비교 경험 등이 그것이다. 학원순례의 경험에서 발견된 학생들의 인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학원생활이란 것이 자신들의 삶의 자연스런 일상이 되어갔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원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가 시켜서 하는 타율의 상태에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원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 발견된 학생들의 인식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학원 공부가 반복적으로 많이 시키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공부가 오로지 학교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학원

시스템의 경험에서 발견된 학생들의 인식은 학원 시스템은 집중과 공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기능을 학원의 저러한 기능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며, 서로 다른 학교와 학원의 기능이 자신들에게는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의 비교 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편하다는 것이다. 이는 학원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것이 학원수업에서의 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은 학교라기보다 학원이라는 인식이다. 셋째는 학원은 잘 챙겨주는 곳이라는 인식이다. 학생들의 성적과 공부에 대해 학원은 학교보다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원 경험을 통해 발견된 논의의 지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첫째는 학원순례의 경험에서 발견된 학원 다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동기 내면화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학원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학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 안쓰러워하거나,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학원의 필요를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아이들의 태도는 어른들의 저러한 시선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듯하다. 아이들이 학원공부가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른들도 일단 이 현실을 좀 가볍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사교육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에는 사교육을 부정,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받게 하려는 분열적인 태도가 많이 있다. 이것은 분명 사교육에 도움이 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한국적 성공시나리오(좋은 학교 성적→좋은 대학→좋은 직장)와 학원공부의 필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학원의 존재는 학교공부 잘 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한층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빨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 같다.

둘째로 논의할 점은 학원에서의 활동과 학원 시스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 대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와 학원은 점점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되고 있는 듯하며, 그 분리의 방향에서 학교는 점점 더 공부하는 것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학교 속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학원 공부 때문에 모자란 잠을 자느라 바쁜 아이들.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난감해 하는 학교 교사들. 이런 모습은 학생들의 학교와 학원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학교는 답을 내 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겠지만, 실마리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학생들처럼 학교와 학원을 동일선상에 놓고 사유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학교와 학원 간에 무의식적으로 매겨 놓은 서열을 거두고, 서로 다른 기능과 차원이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학교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에게는 '학원과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강태중(2008). 사교육 팽창의 교육적 함의, 교육 원리연구 13(1), 47~72.
- 고신·김창환·김충환·이광구·이범·이지은 외(2007). 학원발가벗기기, 서울: 와이즈멘토.
- 고형일·이두휴(200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 연구 12(1), 1~42.
- 김영미(2004). 중학교 학생의 학교와 학원에 대한 담론분석,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영화(2003). 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사회

- 학 연구 13(3), 85~108.
- 김현주(2002). 중학교 학생의 학습문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7). 가정배경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25(4), 485~508.
- 김현철·김홍주·한유경(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 추세, 교육학 연구 37(4), 307~328.
- 류현숙(2007). 학원과 학교 사이에서 : 초등학생과 교사의 딜레마와 수업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8).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행정학 연구 26(1), 391~411.
- 박현주(2004). 중학생의 학원과학교육과 학교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303~319.
- 백상용(2006). 질적 연구의 의미와 한계:양적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연구 15(1), 239~254.
- 송기창(2002). 사교육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1(2), 51~89.
- 송희진(2004). 다섯아이 이야기 :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원학습에 대한 생애사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99~219.
- 이희재(2004). '학원다지기'의 문화기술적 연구 - 중소도시의 학원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아(2003). 중학생의 방과 후 일과 및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2005). 사교육 시간, 개인공부시간, 학교수업 참여도의 실태 및 주관적 학업성적 향상 효과, 한국교육 32(4), 29~56.
- 최상근(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사교육 경감 방안 제5차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RM2003-32-05.
- 황미영(2007). 학원학습에 대한 중학생과 부모의 인식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용희(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8, 113~129.
- Kvale, S.(1996). Interviews: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sage.
- Mishler, E.(1986). Research interviewing:context and narrativ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ng, B., & Tardif, C. (1992). Interviewing:two sides of the story, Qualitative Sociology 16(1), pp.23~41.